

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에 진출한다

- 2023년 K-City 네트워크 사업 8개 도시 선정... 총 40억원 규모

-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,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등 지원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-City 네트워크의 '23년 사업으로 우크라이나, 인도네시아, 이집트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였다.
- 올해 K-City 네트워크 사업은 ①계획수립형, ②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4월부터 국제 공모를 시행하였으며, 총 18개 국가에서 30개 사업을 제출하였다.
 - 계획수립형은 해외도시에서 신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우만, 인도네시아 신수도, 이집트 바드르, 아제르바이잔 아그담에서 신청한 사업 4건이 선정되었다.
 - 우크라이나 우만의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한 교통·인프라·주택 등 분야에 대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, 향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,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경우, 신수도에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여 사업성을 검증하고, 우리 기업의 신수도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.
 - 해외실증형은 우리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, 올해 방글라데시 랑푸르, 베트남 하이퐁, 튀르키예 사카리아,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사업 등 4건을 선정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“해외의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공모 참여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” 면서, “이 사업을 통해 해외 각국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, “9월에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홍보하고, 우리 기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” 이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	윤영중 (044-201-3674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하 (044-201-4844)



구분	국가	대상도시	사업내용
계획수립형 (4)	우크라이나	우만	· (사업명) 스마트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· (사업내용) 우만시를 스마트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조성 경험을 활용하여 마스터플랜 수립
	인도네시아	신수도	· (사업명)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사업 사전타당성조사 · (사업내용) 신수도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 도시관제센터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
	이집트	바드르	· (사업명)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· (사업내용) 수도인 카이로가 도시과밀화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어, 인근의 바드르시를 거주여건이 우수한 스마트시티로 개발
	아제르바이잔	아그담	· (사업명) 인간중심 스마트 교통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· (사업내용) 전후 복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, 해당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하여 질 높은 거주환경 제공
해외실증형 (4)	인도네시아	바뉴마스	· (사업명)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· (사업내용) 세라유강변 대상 CCTV 관제, 수위 감시 및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
	방글라데시	랑푸르	· (사업명)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범 구축을 위한 솔루션 실증 · (사업내용)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범 구축 및 CCTV 기반 서비스 실증
	튀르키예	사카리아	· (사업명) 고감도 센서 및 머신러닝 기반 지반붕괴 감지·예측 스마트 솔루션 실증사업 · (사업내용) 고감도 센서를 통해 지반 붕괴 고위험 지역 대상 지반붕괴 감지·예측 스마트 솔루션 설치
	베트남	하이퐁	· (사업명) 인공지능 통행량 계수 및 위험인지 경보 스마트 솔루션 실증 · (사업내용)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에 따라 도로 통행량 데이터 수집 및 정지선 위반 경보 서비스 제공